

卽身成佛의 大道一密敎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총지종보

인지어서 과반음을 굳게 믿고
행하는데 일체 고통 소멸되고
소원대로 되느니라. - 종조법설집 -

제 9 호

등록번호 마-2360호
등록일자 1995. 8. 29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082

발행인 안 종 호
편집인 이 중 석
인쇄인 김 규 석

대표 전화 (02)552-1080
발행인실 (02)562-8823
편집국 (02)508-8933
광고신청 (02)552-1081
구독신청 (02)552-1083
팩스 (02)552-1082

주요기사 안내

- 1 면 · 종령신년범어
- 2 면 · 통리원장 취임
- 3 면 · 신년사
- 4 면 · 한중일 불교대회 참관기
- 5 면 · 대회연설문
- 6 면 · 신행영험담
- 7 면 · 통리원장에게 바란다
- 8 면 · 이런 불자

새해불공 안내

- 기 간 · 1월5일(월)~1월 11일(일)
- 서원사항
 - 총지종 교세 발전
 - 부국강병 국민애만
 - 조국평화 통일
 - 일체 교도 가정 제재난
 - 일체 교도 가정소구여의
 - 영일체인 경애 교도가정
 - 재난불생 산업발전
 - 사 교화발전

더불어 살아가는 새시대를

불자들이 만드는 밝고 맑은 세상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보려는 성급함을 버리자. 탐을 쌓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무인년 새해가 밝았다. IMF 한파와 기업의 도산, 대통령 선거의 열풍 등 겹잡을 수 없이 휘몰아쳤던 어수선했던 이 계절이 이제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다. 그러나 올해에도 여러 가지 사정은 썩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풀리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아무쪼록 새 대통령이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며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다시 한 번 자랑스러운 한국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도 이제는 바뀌어야겠다. 온 국민 하나하나가 나 혼자만을 위한 이기적 생

각을 버리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하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그들이 <보시바라밀>이라는 말만 들었던들 이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혼자만을 위한 욕심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환경이다. 인간의 자연정복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결국 환경오염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물질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더욱 오염되고 더욱 많은 질병의 발생과 정신적 환

폐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불자들의 몫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중중무진의 인연으로 성립된 이 세계의 실상에 대해 익히 들어왔고 거기에 맞추어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다. 우리의 욕탐이 제어되지 않는 한 결코 진정한 행복은 맛보지 못할 것이다. 새해에 솟아오르는 저 태양빛에도 양지와 음지가 있다. 우리가 양지에서 햇빛을 쬐고 있는 동안에도 음지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 불교도 차제에 달라져야겠다. 외양에만 치우친 불교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중생들의 고통으로 나온 돈으로 대형불

사만 일으키지 말고 진정한 수도로서 불교의 맥을 이어 갈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다. 모든 불자가 불교의 근본정신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한 불교는 결코 쇠약해지지 않는다. 불교의 근본정신을 잊지 말고 일상생활에 반영하여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격변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 확립과 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우리 불자가 중심이 되자.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여러분의 가정에 대일래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참불자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종령신년범어



영원한 행복은 불법속에 지혜로운 불자로 거듭나야

우리를 더없이 부끄럽게 만들던 정축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무인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태양은 다시 이렇게 찬란히 빛나고 있지만 무명과 탐욕에 가리워진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를 두었던 탓으로,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았다는 과보로 올해도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나 시정의 필부 할 것이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고 날뛰어봤자 악연만 쌓아갈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행복의 추구는 또 다른 욕망을 낳고 새로운 고통을 겪어 나갈 뿐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울바르지 못하네 어찌 나라가 바로 서고 경제가 일어설지 않을까? 실속 반짝 서풍이 비치는 듯 하여도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여지없이 깔보고 세계화다 국제화다 해서 좃대없이 놀아나던 지난 날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몸뚱이리에 남의 머리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것은 제 몸뚱이리에 남의 머리를 가져다 붙인 글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서글픈 세상을 바로 잡아갈 사람들은 우리 불자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일수록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리를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구의 무분별한 사상유입과 외도의 발호는 우리에게 썩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불만큼 보아 왔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나아가서 지구를 살리고 온 인류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교 밖에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영원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 스스로를 갈고 닦아 이 사회의 길잡이가 되도록 합시다. 말로만 떠드는 불교가 아니라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로 거듭나기를 부처님전에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총기 27년 무인년 새해 아침

불교총지종 종령 특정 합장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종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배전의 노력으로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통리원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통리원

사 설

불교텔레비전에 격려를

최근 IMF의 지원을 둘러싸고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더욱 드높아지고 있다. 기아그룹의 부도 위기와 정부의 어설픈 대응이 맞물려 우려를 자아내더니 결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수모를 당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절감케 하고 있다. 이같은 우리사회의 경제위기는 이미 1-2년 전부터 예견되어왔던 일이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불황은 상당기간 지속되리라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불교텔레비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개국 3년 째를 맞고 있는 불교텔레비전으로서도 요즘과 같은 상황이 혹독한 시련기가 아닐 수 없다. 케이블텔레비전 업계를 비롯해 한국의 미디어 산업은 전성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오랫동안 온실 속에서 무한 성장을 거듭해온 옛날과는 달리 위성방송시대 개막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살아남기위한 지구책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케이블 업계 가운데도 '한국의 CNN'이라고 하는 국내 최초의 24시간 뉴스 채널 YTN을 비롯해 GTV, 다솜방송 등이 새 주인을 찾고 있고 이미 제일방송, m.net 등이 새 주인을 맞이 했다. 공중파 방송도 내핍 경영에 들어가는 마진까지이다. KBS, MBC, SBS가 약속이나 한듯이 제작비 및 경비 절감을 외치고 있다. 방송광고 판매율이 하락곡선을 그

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와 같은 종교방송인 기독교의 CBS조차도 감량경영을 선언하고 나섰다. 보너스 지급연기, 인원감축을 위한 명예 퇴직제 실시도 불사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불교텔레비전의 어려움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개국 이래 임금을 동결시켜온 것은 물론 협찬이 따르지 않으면 기획물의 제작은 업무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의 명찰이 1백편 제작을 넘어섰고 고려대장경, 석굴암등 문화유산시리즈를 기획방영하는 등 1천6백년 불교문화의 향기를 영상으로 재현해 낸 성과는 그 어떤 불사에 견줄 바가 못된다 하겠다. 불교텔레비전은 포교방송을 지향하고 있지만 불자들의 지원과 격려는 참으로 냉담하기까지 하다. 초기 안정적 발전 자금으로 설정한 2백50억 달성이 4차에 걸친 대대적인 주식공모를 통해서도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다행히 불교텔레비전의 인기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작 협찬이 잇따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2차 케이블 TV 지역 방송국이 허가돼 이제 전국이 불교텔레비전 가시권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은 한줄기 서광이 아닐 수 없다. 미래 포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불교텔레비전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때까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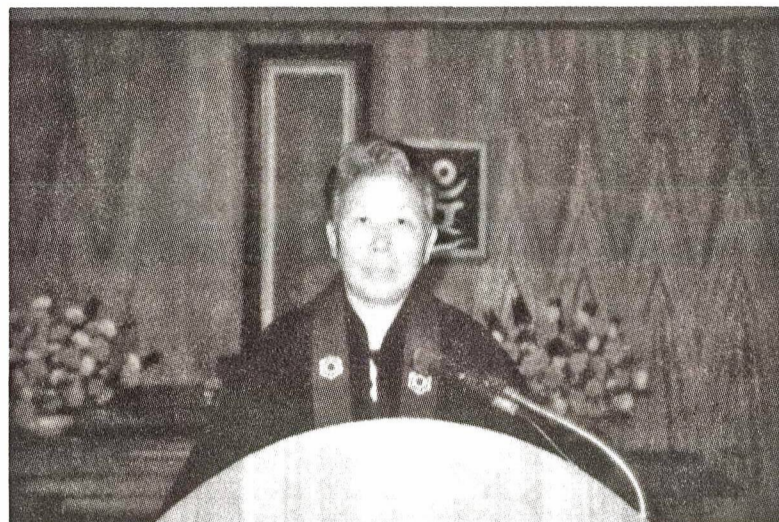
교단의 통제력이 시급하다

얼마전 엠비씨의 '피디수첩'은 삼백회 특집으로 석용산이라는 인물의 비행을 보도하였다. 그 내용인즉, '여보게 저승갈 때 무엇을 ...'라는 수필집으로 유명세를 탄 석용산은 수행자의 신분을 가장한 파렴치한이라는 것이다. 조계종에 의하면, 석용산은 종단에서 진작 징계계를 하였으므로 '수행자' 혹은 스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종단의 조치가 있었든 아니든 그는 스님으로 행세했고 그래서 유명해진 인물이다. 석용산의 유명세만큼 그의 비행은 상대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에 놀란 조계종측에서는 이미 엠비씨 취재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석용산은 스님이 아니다'라고 밝혔건만 굳이 방송사측이 스님이라고 강조한 것은 불순한 경의가 있다고 성명을 내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 교계 단체 신도들도 이구동성으로 방송사의 선정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번 엠비씨의 석용산 폭로 방송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몇가지 결연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중의 정신적 사표로서 혼탁한 중생계를 정화하여야 할 수행자에게 명예욕은 금물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일부 수행자 사이에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되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으로 인기 있는 승려라면 무조건 모여드는 '신도'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일

종의 스타추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릇된 신행이 바로잡히지 않고는 결코 한국불교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타종교의 일부 광신적 지도자들은 신자들의 이런 행태를 이용하여 교세를 불리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 교단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문제의 방송사는 석용산의 인기를 이용하여 여성과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그를 여러번 출연 시킨바 있다. 방송의 영향으로 그는 더욱 유명세를 탄 것이며 따라서 그의 비행을 부채질한 책임의 일단은 방송사에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나 언급 없이 '승려'라는 특정 신분의 선정성을 최대한 악용하는 유희포를 부렸다. 언론의 이런 행태에 어떤 식이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팎에서 교단을 음해하고 악용하는 자들이나 사례는 속출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해 교단의 통제력이 현재와 같이 미약하다면 앞으로 한국불교의 위상은 어찌될 것인지 명약관화하다. 대개의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출가자의 형체를 차용하고 있다. 수행자하면 출가를 연상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이 그 배경일 것이다.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문제 인물들이 교단 특히 출가자로 행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단의 공동기구를 창설하여도 좋을 것이다.

제11대 통리원장 총지화 지수

교계 최초의 여성 통리원장



대전만보사 주교로서 중앙 종의원과 총칭전라 교구장을 겸직했고, 교정부장, 사감원장등 종단내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종단의 화합과 밀법 흥포에 헌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력

- 본명:김점순(金點順)
- 불명:총지화(總持華)
- 1936년 전주 출생
- 1973년 총지종 입교
- 1975년 대전 관음선교부 주교
- 1976년 대전 만보사 주교
- 1978년 대인사(大印師) 품수
- 1987년 대전수(大傳授) 품수
- 1989년 중앙 종의원 피선
- 총칭·전라 교구장 피선
- 1991년 통리원 교정부장 피선
- 1992년 스리랑카 팔리 불교대학 졸업
- 1992년 지수(智授) 품수
- 1994년 사감원장 피선
- 1997년 10월 11대 통리원장 피선

제11대 총지종 통리원장에 총지화(總持華) 지수(智授:大傳授 위)의 품계)가 임명되었다. 지난달 14일 중앙 종의회에서 목정(穆靜) 종령의 추천과 종의회의 승인에 의하여 통리원장에 선출된 총지화 지수는 현재 만보사 주교를 담임하고 있으며 10대 통리원장인 법공 대정사의 뒤를 이어 임기 3년의 통리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22일의 정기 강공회에 앞서 본산 총지사 서원당에서 전국의 승직자와 종무원, 교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지고 업무를 개시했다. 삼밀의계에 의하여 총지종의 교세 발전과 신임통리원장의 업무원만을 기원하는 법요식을 겸하여 거행된 취임식에서 총지화 신임 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웅대한 원력과 금강같은 신념을 지니고 총지종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역대 통리원장의 본을 받들어 승단의 화합과 정법 수호에 전념할 것임을 맹세하며 총지종이 명실상부한 정통불교종단으로서 더욱

눈부신 성장을 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기 위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목정 종령은 격려사를 통하여 이번에 선출된 총지화 지수는 비록 여성이지만 그 누구 못지 않은 신심과 수행으로 종단의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에 보여준 왕성한 교화활동과 행정력으로 역대 통리원장의 본을 받들어 승단의 화합과 정법 수호에 전념할 것임을 맹세하며 총지종이 명실상부한 정통불교종단으로서 더욱

조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취임한 11대 총지화 통리원장은 20대 초반에 밀교에 귀의한 후 한결 같은 수행으로 밀교의 철리를 증득하고 원정 종조를 보필하여 총지종의 참종에 기여했으며 단칸 셋방의 협소한 서원당에서 시작하여 중부지역의 중심도량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만보사를 있게 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밀법에 귀의시키고 바른 삶을 열어 준 대아사리(阿耨梨)로 칭송되고 있다. 그동안

종의회 및 감사원 임원 선출

통리원 일부 인사 이동도



종의회의장 송 하 감사원장 원 봉 사회부장 혜 암 교정부장 원만원 총무부장 지 성 재무부장 선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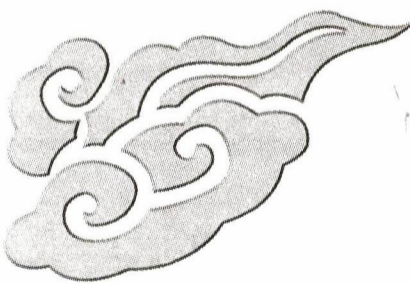
지난달 30일 종령이 소집한 임시 종회에서 종회 의장을 비롯하여 감사원에 대한 보직 결정과 이에 따른 일부 개편이 이루어 졌다. 종의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는 종의회의장에는 성화사 송하(松霞) 대정사가 지난번 임기에 이어 연임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종회 부의장에는 화음사 법정(法靜) 대정사가

선출되었다. 이번에 선임된 의장과 부의장은 종현상 임기가 4년으로서 오는 총기 30년 6월까지 직책을 맡게 된다. 신임 감사원장에는 수인사 원봉(圓峰)대정사가 종령의 추천에 의하여 종의회의 인사준으로 임기 3년의 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감사원 부위원장은 법성사 시각화(始覺化)지수가

통리원장의 지명으로 선출되었다. 종의회에서 선출된 감사위원으로 화음사 주교 법정(法靜) 대정사와 국광사 주교 법성(法成)이며 선립사 주교 심지성(心池藏) 대전수가 통리원장에 의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아울러 신임 통리원장의 취임으로 통리원의 일부 인사 이동이 이

루어졌다. 지성(知性) 재무부장이 총무부장에 임명되었으며 선도원(善導願) 실지사 주교가 재무부장을 겸직하며 법천사 원만원(圓滿願)전수가 교정부장에, 실보사 혜암(慧庵) 대정사가 사회부장에 각각 임명되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회 장	송 월 주/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김 혜 정/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수석부회장	홍 인 곽/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이 사	손 금 광/대한불교진언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전 운 덕/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이 사	이 법 덕/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부 회 장	김 성 초/대한불교진각종	총무원장	이 사	이 혜 우/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부 회 장	김 월 서/대한불교조계종	초심호계원장	이 사	이 대 화/대한불교본원종	총무원장
부 회 장	방 지 하/중앙승가대학	총장	이 사	윤 송 정/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이 흥 파/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이 사	신 혜 안/대한불교여래종	총무원장
이 사	김 대 호/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이 사	윤 일 오/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이 사	정 혜 일/대한불교보문종	총무원장	이 사	김 무 찰/대한불교일부선교종	총무원장
이 사	송 보 인/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이 사	이 청 봉/보국불교염불종	총무원장
이 사	총 지 화/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이 사	권 성 우/대한불교미타종	총무원장
이 사	정 법 룬/대한불교법상종	통리원장	이 사	김 해 공/대한불교열반종	총무원장
이 사	송 무 진/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이 사	김 광 태/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이 사	전 남 정/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창교절 종령 유시문

전국의 종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총지종이 정통밀교의 가치를 내걸고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드리운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총지종의 오늘이 있기까지 신명을 바쳐 교화에 힘쓰신 선대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종단의 발전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종도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이켜 보매 우리 종단이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수의 종단이라는 반열에 오르기까지에는 수많은 간난신고를 헤쳐나와야 했습니다. 원정 종조께서 일찍이 밀교의 정맥(正脈)을 잇고자 준제법으로서 교화하려 하셨으나 몸매한 일부의 곡해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하시며 심혈을 기울여 가꾸어 오시던 진각종을 뒤로하고 떠나신 것이 벌써 사반세기 전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목말라하던 보살 대중의 열화와 같은 여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백일정진 끝에 드디어 정통밀교 총지종을 창종하셨으나 채 기반이 잡히기도 전에 열반하시어 우리 종단이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고삐를 늦추어야 했던 일은 두고두고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 승단과 교도들은 원정 종조께서 열어주신 정법에 의지하여 금강같은 신심으로 스스로를 밝히고 가정을 지키며 화복과 합심으로 종단을 일구어왔습니다. 재가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도에 맞는 생활태도와 이웃을 생각하는 보살정신은 다른 종단의 본보기가 되어 왔으며 혼탁한 이 사회의 등대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종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과 시대적 격동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지중합니다. 언제나 정법에 의지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며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보살피며 이웃을 이끄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진리는 불변입니다. 대승불교의 꽃이며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밀교,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정통밀교 종단인 우리 총지종은 오직 정도로서 참진리의 길을 열어주는 금강도량입니다. 원정 종조께서 온갖 간난신고를 물리치고 정법의 길을 열었듯이 우리도 최상승 밀법에 의지하여 한 점의 의심없이 굳건한 신심으로 나의 삶을 밝히고 이웃을 제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총지종을 시방세계에 널리 알리고 모든 중생들이 다함께 성불의 배를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섭시다. 여러분의 배전의 용맹정진을 바라며 부처님의 가지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기 26년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종령 록정 합장

창교절 행사 봉행

교세발전과 평화통일 기원도

제25회 창교절 기념행사가 12월 24일 10시를 기해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개최되었다. 삼밀의계에 의한 총지종 교세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법요식과 함께 종조 생전의 육성 법음을 청취하고 공덕을 기리며 화생회, 청년회의 창작발표 및 신정회의 친목을 도모하는 문화행사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는 사원에 따라 자기허물을 드러내어 참회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는 재불공도 함께 봉행되었다.

총리원장 신년사

종단의 발전과 수행에 이바지를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이 지나고 무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상주불변하는 법계에 해가 달라진다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만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종생의 마음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난 때문에 온 국민이 그처럼 수모를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과 도산의 아픔에 눈물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무능력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가꾸어 온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히 그리고 평화적으로 선택한 우리의 지도자가 화합과 국가 재건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는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하는 바가 크기도 하겠지만 우리 온 국민의 근기가 성숙하면 어느 한 사람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드는 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헛된 외래사조에 휩쓸려 살아온 지난 반세기가 돌이켜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외래의 저급한 풍속,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외래 종교, 천박한 배금주의 등 우리는 나쁜 것들에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정물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온갖 도깨비 놀음을 다 돌아보았지만 그러나 역시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 것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것을 아끼며 세계가 우리를 쳐다 보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할 사람들은 우리 불자들 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총지종은 재가불교종단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도를 걸으며 청정한 수행으로 이 사회의 기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새해에도 전수 정사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종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용맹정진으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며 나아가서 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총리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신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도 신명을 바쳐 종단의 발전과 여러분의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가슴에 깃들도록 부처님전에 기원합니다.

총기 27년 무인년 새해 아침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총지화 합장

법장원장 신년사

정통밀법의 흥포로 제세의생을



경제난국과 대통령 선거 등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나라를 들끓게 했던 정축년이 지나고 이제 무인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끄럽고 허탈하게 만들었던 경제난국도 조금씩 풀려나기라 믿으며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렇게 잘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이나 물론 잘하겠지만 이제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다잡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우리 국민 개개인입니다. 백성이 어리석으면 지도자도 무능한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이 나라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쓰러진 과거는 역사의 교훈으로 가슴에 새겨두고 이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우리 종단도 교계 최초의 여성총리원장의 임명과 의욕적인 새로운 집행진의 업무인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정 종조께서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정통밀교의 가치를 드날린 지도 이미 사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근본진리야 달라질리 없지만 제생의세하는 방편은 이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법식을 간소화하고 생활불교를 실천하느라 참신한 교풍을 진작했던 우리 종단이지만 3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사회의 분위기와 중생의 근기가 달라진 것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교화의 열의도 그전 같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조의 유지를 받들고 우리의 정통밀법을 흥교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법장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려하면서 종단 발전의 길을 모색해 왔으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발전의 길을 모색하느라 초창기의 그 열화와 같은 교세확장의 불길을 다시 지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재가불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출가 종단에 뒤지지 않는 청정한 계율과 검소한 생활로 다른 종단의 귀감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단의 종도들은 누구할 것 없이 굳건한 신심으로 중지를 지켜왔습니다. 새해에도 이러한 전통이 줄기차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지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총기 27년 무인년 새해 아침

불교총지종 법장원장 효강 합장



제3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일본 교토(京都)에서 한중일의 불교계 대표와 참관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거행된 이번 행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한중일 세나라의 불교가 3국 불교교류사상 처음으로 세계를 향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교토에서 효강 법장원장, 구체적 교류 방안제시

대회는 제1회 북경대회, 제2회 서울대회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서 본 종단에서는 효강 법장원장과 교도 대표들이 대표 및 참관단으로 참가했다. 교토 대회에서는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삼국불교우호교류회의를 발전 확충시키며 학술 및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불교 이해를 한층 깊게 하기 위한 사업 추진과 불교 흥포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는 '일본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나카무라 고오류(中村康隆)대회장(일중한불교교류회 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 민족과 그 문화의 형성에 있어 한국을 어머니의 나라라고 믿어 왔으며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참회하며 세계인류의 공존공영과 불국토 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여 민족의 구분을 떠나

참다운 불교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또한 본종의 안효강(安曉岡) 법장원장은 보충연설을 통하여 불교문화와 학술, 예술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인재를 상호 파견, 유학케 하며 경전의 전산과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불교 전반에 걸쳐 실제적인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삼국의 불교 대표기구가 공식화, 전문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제시하여 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28일 동대사(東大寺)에서 봉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정점으로 나리현 신흥회당에서 열린 폐회식에서는 '일본선언'의 채택과 함께 한중일의 황금유대를 불교를 통하여 더욱 돈독히 할 것을 다짐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앞서가는 불자들의 필독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불교와 문화」는

우리네 삶의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잡지입니다.

불교를 바탕으로 우리문화의 참가치를 널리 알리고 일깨우기 위해 현실의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 · 기 · 구 · 독 · 신 · 청 · 안 · 내

전화 02-719-2606, 전속 02-719-5052

먼저 아래의 은행계좌번호나 지로번호로 구독료를 입금하신 후 전화로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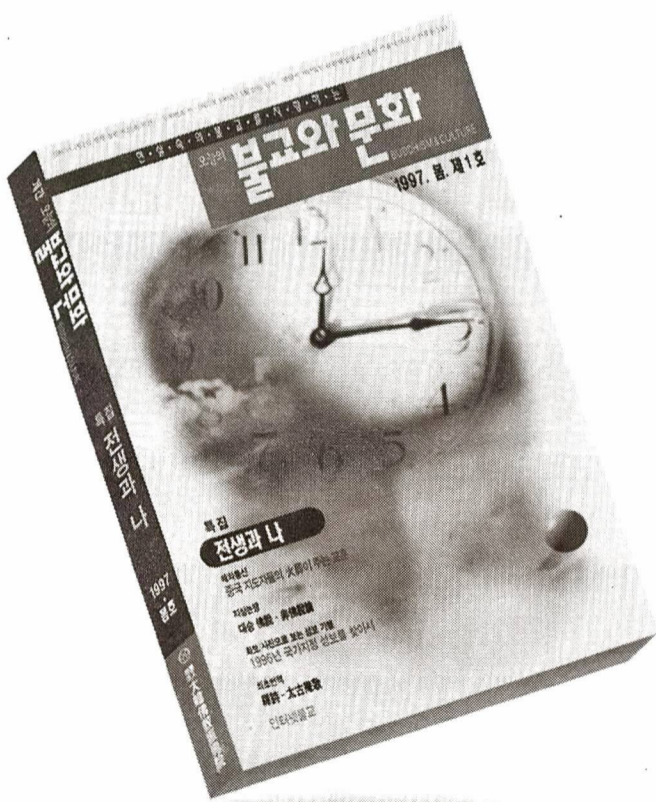
구독료: 1년(4호간) 32,000원

송금계좌: 국민은행 827-25-0006-047 외환은행 189-13-02685-0

우체국 012245-000499-11 농협 099-01-197161

◆ 예금주: (재)대한불교진흥원 지로번호 7630868

■ 재)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우)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 TEL/(02) 719-1855, FAX/(02) 719-5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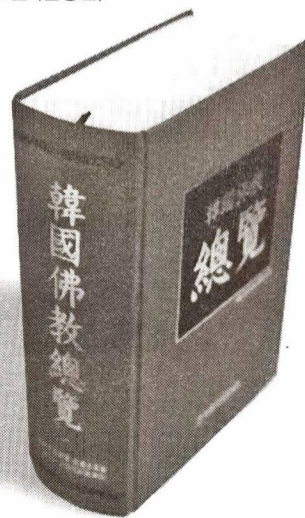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韓國佛教總覽

총단 50곳, 법인·단체·기관 3,000곳, 사찰 12,000곳, 불교인명 2,000명, 불교문화재 2,100점, 불교도서·논문 6,500편, 1,600년 한국불교사 연표 등 총정리

1,600년 한국불교의 현황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불교계 최초의 종합자료집 『한국불교총람』이 1993년 12월 초판 발행에 이어 변형된 내용을 개정하여 3년 6개월만에 전면 보원판을 발행합니다.

■ 『한국불교총람』 보원판은 CD-ROM TITLE으로도 발행됩니다. 보급가/60,000원 (한정본)



97년 보원판

4×6배판/1,000쪽/양장본 ■ 보급가/120,000원/권간

■ 발행 및 보금처: (재)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 TEL/(02) 719-1855, FAX/(02) 719-5052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참관기

세계평화와 불법홍포를 위한 교토대회

불교를 통한 한중일 황금유대를 위하여

제3회 한중일 불교우호회의 일본대회의 참관단의 일원으로서 대회에 참가했던 화령 법장원 연구원을 통하여 대회의 모습과 일본의 대표적 사찰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일본의 문물에 대하여 느낀 점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한중일 불교우호회의는 불교를 통하여 한중일 삼국의 우호를 다지고 과거의 활발했던 삼국의 교류를 계승 발전시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전세계에 불법을 널리 알리므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여 불국토를 이루겠다는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지난 95년에 발족하여 제1회 대회를 중국 북경에서 치루었으며 제2회 대회는 작년에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다시 올해 일본 교토(京都)에서 제3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본중에서는 매년 대표단과 참관단을 파견하였으며 이번의 일본 대회에서는 특히 개최식에서 화령 법장원장이 보충연설을 통하여 삼국 교류의 구체화에 대한 제언을 하므로써 대회 참가자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종단의 위상을 드높였다.

—편집자 주—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의 교토대회는 95년의 북경대회와 작년의 서울 대회에 이어 세번째 개최되는 것으로서 한중일 삼국의 불교를 통한 우호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한껏 살린 뜻깊은 대회였다. 본중에서는 매년 대표단과 참관단을 파견했으나 금년에는 종단내의 행사관개로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인원은 대표인 화령 법장원장을 비롯하여 이기상(불명 시덕) 신정회 고문, 안옥진(불명 선도재) 밀인사 신정회 회장, 송무생(불명 지심정) 전 신정회 회장, 정란재(불명 보생각) 신정회 부회장, 최재숙(불명 원각화) 신정회 총무들이 참관단으로 참가했다. 10월 26일에서 30일까지 4박5일에 걸쳐 거행된 이번 대회를 통하여 일본 불교의 모습을 외형이나마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음은 본인으로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바쁜 종단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관단으로 선발하여 안목을 넓힐 기회를 주신 종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대표단과 참관단은 10월 26일 아침 8시에 김포공항에 집결하여 출국 수속을 마치고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날씨가 쾌청하여 창밖으로 내다보는 풍경이 선명하다. 이륙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남해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한심해 보여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우리 나라 산천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산맥은 그저 밋밋하게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산과 골짜기는 오목조목 조화가 무궁하다. 기내식을 먹고 나니까 곧 착륙할 시간이 되었다. 내린 곳은 오사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간사이(關西) 국제공항으로서 바다를 메운 인공섬이라고 한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안내원이 깃발을 들고 우리를 마중하러 나왔다. 어디에 가나 깃발을 앞세우고 다니는 일본인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에서도 안내 깃발을 보니 일본에 오기는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난다.

교토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일본 정토종의 총 본사인 지은원(知恩院)이라는 절이었다. 일본 정토종은 법연상인이 개종했으며 본산인 지은원은 1234년에 그 제자인 원지(源智)가 세웠다고 한다. 이후 덕천막부(德川幕府)의 세력을 등에 업고 성장하여 지금은 일본의 최대종파의 하나라고 한다. 절의 규모는 매우 컸으며 특히 본당이라고 할 수 있는 어영당(御影堂)은 1639년에 세워졌는데 우리나라의 웅만한 대웅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웅장했다. 이 절의 특이한 것 중의 하나는 막부의 영향 때문인지 건물 곳곳에 무사들이 대

기하는 방이나 밀실이 있어 여자하면 뛰쳐나와 칼을 휘둘렀다고 한다. 나무로 만든 복도도 자객의 침입에 대비하여 일부러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 놓았다. 오직 평화만이 감돌아야 할 신성한 부처님의 정전에 칼바람이 휘몰아쳤다는 상상을 하니 갑자기 섬 해진다. 어쨌든 권력을 배경으로 이렇게 웅장한 사찰을 이룩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일본 불교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으니 다행이라만 다행이라고나 할까? 다만 큰 병화를 입지 않고 절들이 보존되어 온 것을 보면 부럽기까지 하다. 시간이 없어 사찰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못했지만 옛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큰 사찰들이 주위의 조화를 무시하고 경내에 마구잡이로 신축하는 것과는 대비가 된다.



第3回 中韓日 仏教友好交流會議 日本大会

리 잔반이 거의 남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 음식 찌꺼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우리 보다는 식후 처리가 간편할 것 같았다. 일본인들의 절약 정신은 호텔에서조차 유감없이 발휘되어 물을 아껴주고 수건도 가능하면 여러번 쓸 것을 권장하는 안내문이 여기저기에 붙여져 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일본식 정원이 오묘조묘하게 가꾸어져 있다. 꾸미는데는 일가견이 있는 일본 사람들. 동네 어귀의 조그만 짜투리 땅에도 돌과 나

일본 불교의 어머니는 한국불교 불교가 주류인 일본의 종교계, 우리완 달라

지은원에서는 정토문주(門主)이며 지은원문적(門跡)인 나가무라 고요류(中村康隆)스님이 영접해 주었는데 92세의 고령이라 몸은 약간 불편하나 참다운 수행자의 모습이 역력하여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분이였다. 나가무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불교의 뿌리가 한국이며 한국을 일본 불교의 어머니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정치, 문화등 여러 방면에서 한국이 일본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부가 과거에 한국에 대하여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는데 여기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일본의 양심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불교를 통한 각국간의 유대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불교인은 이렇게 양심적인데 왜 정치인들은 것처럼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며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은원을 둘러 보고 바로 숙소인 파크 호텔로 들어왔다. 교토에는 절이 1300여개소나 된다고 하며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4시에 문을 닫아 건다는 점이 우리와는 달랐으므로 더 둘러보고해도 어려웠다. 식사는 일본식으로 했는데 입맛에 썩 맞지는 않았지만 일본 음식은 눈으로 먹는다는 말처럼 보기에는 좋았다. 그리고 음식의 성질상 우리와는 달

무로 아름답게 꾸며 놓았다. 너무 인공적인 것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어느새 쓰레기로 가득 차 버리는 우리네 사정과 비교하면 한결 나은 셈이다. 교토는 저녁 8시만 되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달리 가볼 데도 없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날인 27일에는 일본의 재가불교인 입정교성회(立正佼成會) 경도교회에서 거행된 개회식에 참가하여 각국 대표의 연설을 들었다. 입정교성회는 1938년에 창립된 재가불교로서 범화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여 교세를 떨치고 있는 신흥종단인데 일본에서는 어느 교단 못지 않게 규모가 크다고 했다. 재가자들만으로서 이렇게 큰 종단을 이룩한 것도 일본 불교의 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불교도 사발하고 승복을 걸쳐야만 대접을 받는 풍토를 하루 빨리 벗어나 생활 자체를 불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종단의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라는 적극적인 실천 자세는 앞으로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행사를 도우고 있는 입정교성회 신도들의 친절함과 여러 가지 정성어린 배려들도 본 받을 만 했다. 개회식에서는 특히 본종의 화령 법장원장이 보충연설을 통하여 각국의 실질적인 교류를 추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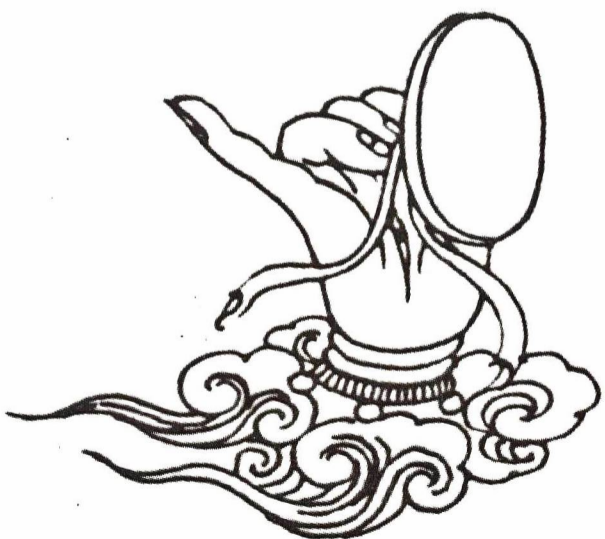
문화, 학술 등에 걸친 인적교류를 역설하여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오후에는 비에산 연력사(比叡山 延曆寺)를 방문했다. 일본 밀교는 진언종을 중심으로 하는 동밀(東密)계통과 천태종을 중심으로 하는 태밀(台密)로 나뉘어지는데 연력사는 천태밀교를 세운 전교대사 최징(傳教大師 最澄)에 의하여 창건된 절이다. 연력사는 전교대사에 의하여 788년 근본종당이 세워진 이래 1200여년에 걸쳐 꾸준히 맥을 이어 왔으며 일본 불교의 대부분이 자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요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 유서깊은 사찰이라고 한다. 안내하는 스님의 말에 의하면 일본불교의 대부분의 종파는 이 연력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나 자랑스러운 것은 전교대사가 당에 유학하여 태장계 계통의 밀법을 받아와 연력사를 창건했는데 그 밀법을 전해준 이가 다름아닌 신라의 의림(義林)선사이다. 즉 신라의 의림선사가 당에서 태장계의 밀법을 순효(順曉)아사리에게 전해주니 이 순효아사리가 전교대사 최징에게 법을 전하므로써 신라의 의림선사는 전교대사의 할아버지 뻘 되는 스승이 된다. 이렇게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불교의 바탕에는 늘 우리나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를 기어코 부정하며 중국에서만 영향을 받은 것처럼 부정하는 일부 학자들의 편견이 가여울 뿐이다. 아무튼 연력사는 일본 불교의 뿌리 담게 규모가 웅장하고 경내가 넓었다.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우리나라의 사찰처럼 단청을 칠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습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일본의 산은 산세가 우리나라처럼 아기자기하고 그윽한 맛이 없다. 대부분의 산이 그저 밋밋하게 뻗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건물도 웅장하게만 지었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고찰처럼 불수록 감칠 맛이 나고 안기고 싶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다. 하나 부러운 것은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일본인들의 정성이다. 우리처럼 불사를 한담시고 주위와 어울리지 않게 무조건 크게만 지어 조화를 깨뜨리고 구조물을 설치하여 보기 흉하게 하는 무식한 짓은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전통을 아끼고 사랑하며 철저히 보존하는 일본인들의 태도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 같다. 한국에서 왔다고 특별히 주시님으로 부터 차대접을 받고 비에산을 떠났다. 저녁에는 교토의 미야코(都)호텔에서 열리는 환영리셉션에



천통밀교 불교총지중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불교총지중 경인교구장
새해아침 경 관 합장

천통밀교 불교총지중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불교총지중 부산·경남교구장
새해아침 의 강 합장

참가했다. 각 나라의 대표단과 참관단이 어울려 식사를 하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는데 언어의 소통이 좀 더 원활했다 라면 우의도 더욱 돈독해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지만 그러한 한계를 초월하여 다 같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공동체적 의식에 세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평화를 기원하고 불법을 흥포하기를 맹세하는 모습은 더 없이 흐뭇한 광경이었다. 우리 보살님들은 한복을 차려 입고 참석하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한껏 자랑했다.

대회 3일째인 28일에는 세계평화기원법요식에 참석하기 위해 해 나라(奈良)의 동대사(東大寺)로 향했다. 나라(奈良)라는 지명은 우리나라의 '나라'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고대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다. 많은 유적지와 문화재가 남아 있는 곳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주에 비견되는 지방이다. 이곳 나라는 경주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기도 하며 지금도 상호 교류가 활발하다고 한다. 담징의 금당 벽화가 있는 법통사(法隆寺)도 이곳 나라지방에 있다. 동대사는 일본 4대사찰의 하나로서 원래는 화엄, 삼론, 법상, 율, 성실, 구사, 진언, 천태등 8종을 겸한 도량이라고 전해져 왔는데 지금은 화엄종의 총본산이다. 우선 건물의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건물의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고찰보다 낫다고 할 수 없지만 규모면에서는 정말 웅장했다. 이렇게 큰절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일본의 풍토에서 잘자라는 스키목(삼나무)이 많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본의 고찰이 있는 산주변에 자라는 삼나무들은 수백년이 된 것들로서 돌레가 보통 몇미터를 넘는 것들이다. 동대사의 웅장함도 그런 나무들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동대사에도 우리 조상의 흔적이 남아 있다. 동대사가 창건되고 신라스님 심상(審相)이 이 절에서 최초로 화엄경을 강의했다고 한다. 동대사가 화엄종의 본산이 된 것도 아마 그런 인연이었던가 보다. 본당 안에는 비로자나불을 모셨는데 그 규모 또한 대단하여 보는 사람들을 압도했다. 세계평화기원법회는 각국의 고유 법요식에 따라 이 세계에 전쟁과 질병, 고통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되기를 기원하며 한중일 불교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의가 돈독하기를 바라는 내용의 발원문이 이어졌다. 이러한 큰 대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불자들도 집안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확대하여 진정으로 인류에 봉사하고 정법을 펼 수 있는 참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오후에는 담징의 벽화로 유명한 법통사를 방문했다. 이 절은 일본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유서깊은 절이다. 일본의 성지로 받들어지며 독실한 불자였던 쇼토쿠(聖德太子)와 그의 부친에 의하여 607년에 건립된 이 절은 우리 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담징의 금당벽화로서 유명하다. 관세음보살상이 그려진 금당의 벽화는 부드러운 선과 우아한 미소들이 일품이다. 1949년의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훼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의 안내책자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담징의 이름은 물론 이 절의 창건주인 성덕태자의 스승이 고구려의 혜자(惠慈)스님이었다는 말도 없다. 담징스님은 일본에 종이·붓·먹 만드는 법과 그림을 가르치므로서 일본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일본서기에 나와 있음에도 한 마디 언급이 없는 것은 못내 섭섭하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끼친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극히 꺼리는 것으로 보아 일본사람들은 우리에게 심한 문화적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아무튼 일본의 곳곳에 우리 민족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흐뭇하다. 그러나 한편 훌륭한 문화를 일본에 전하여 그들의 문화를 꽃피운 그 시절의 영화는 어디가고 도리어 일본으로부터 쓰레기 같은 저급문화만 수입하는 지금의 세태를 보면 서글픈 감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대회 나흘째인 29일에는 고야산(高野山)을 방문했다. 고야산은 일본 최대종파의 하나인 진언종의 본산이 있는 곳으로서 일본불교의 개창자인 홍법대사 공해(弘法大師 空海)가 816년에 금강봉사(金剛峰寺)를 창건하므로서 개창된 곳이다. 그 후 사찰이 잇따라 건립되어 지금은 일본 최대의 밀교도량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400여개의 가람이 해발 1000미터의 고야산 분지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으며 무수한 참배객이 연중 내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고야산 방문객을 위하여 산마루까지 철도가 놓여져 있으며 금강봉사를 중심으로 한 절마을에는 병원, 우체국, 은행등 없는 것이 없다고 한다. 절이 들어 서므로서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된 것인데 이렇게 높은 곳에 감히 이처럼 웅대한 사원을 건설하려고 꿈꾸었던 공해의 혜안에 놀랄 뿐이다. 밀법의 금강같은 원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고야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의 때문에

서부터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는 근본대탑등 모든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곳 고야산 뿐만 아니라 그동안 둘러 본 일본의 사찰은 모두 규모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이다.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종교건물이 웅장하면 그 앞에서 왜소함을 느끼게 되는 인간심리는 어쩔 수 없다. 공해는 중국에 유학하여 해과(惠果)아사리로부터 이른바 금강, 태장의 양부대법을 전수받고 돌아와 나름대로의 밀교 이론을 전개했는데 그로부터 발전된 일본 밀교는 현재 고야산을 중심으로 무수한 계파가 뻗어나가 현재는 일본 불교의 큰 산맥을 이루고 있다. 통불교 속에 흡수되어버린 우리나라의 밀교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교세가 왕성하다. 우리가 갔을 때도 수많은 참배객들이 줄을 잇고 있었으며 명찰을 찾아다니며 순례하는 행렬이 속속 들이닥치고 있었다. 일본의 밀교가 이렇게 번성함에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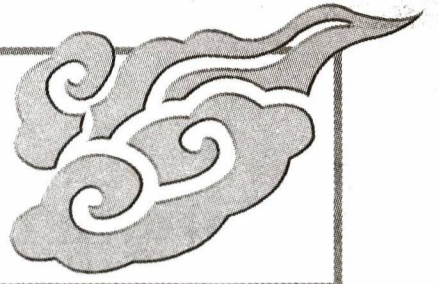
고야산의 풍경중 하나 특이한 것은 공해가 입적했다는 오쿠노인(奥之院)의 양쪽에 늘어진 묘지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묘지가 아니라 조그만 탑 아래 유골만 봉안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10만기가 넘는다고 한다. 탑아래에는 조상 대대로 유골만 봉안하기 때문에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온 가족이 참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무척 편리하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화장제도가 정착되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 정신에도 맞고 뒷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될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여 여러 군데를 자세하게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천년이 넘는 고찰들이 병화를 입지않고 고스란히 보존되어 온 것이 부럽고 우리처럼 경내에 보기 싫은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조화를 깨뜨리는 터무니 없는 불사는 없는 것 같았다. 가는 곳 마다 밀교적 색채가 뚜렷하고 특히 불단의 정음은 우리 종단도 연구해 보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법식을 간소화하여 법을 전하는 것이 우리 종단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신심을 고취하고 경건한 마음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전통을 되살려 교화에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 날은 밀엄원(密嚴院)이라는 곳에서 숙박했는데 신의진언종의 개조인 카쿠반상인(上人)이 세운 곳이라고 한다. 이곳은 법당 이외에도 숙식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통 일본식 음식에 다다미방에서 수면을 취했다. 다음 날 새벽에는 밀엄원의 본당에서 일본식으로 법회를 보았다. 법당의 꾸밈새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달랐고 내부가 무척 어두웠다. 명암의 대비를 강조하여 본존만이 오투이 드러나도록 한 것이 인상 깊었다. 법요식은 비록 일본어로 진행되었으나 상당

히 엄숙하고 경건했다. 불교는 역시 어디가나 깊이가 있는 종교인거보다. 8시경에 고야산을 출발하여 우리가 내렸던 간사이 공항으로 되돌아왔다. 도중에 차창 밖을 내다보니 시골 풍경이 보이는데 장난감 같은 일본식 집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무척 귀엽게 느껴진다. 스치며 지나오는 대로 변을 보아도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다. 이렇게 깔끔하고 싹삭

경도대회 주제연설

효 강 불교총지종 법장원장



문화, 학술, 인적 교류 등 유대증진에 대하여

존경하는 한국·중국·일본의 불교 지도자 여러분, 지난 93년 11월 중국불교협회 회장 趙樸初 선생의 제안으로 發足하게 된 삼국의 佛敎友誼交流는 近世 이후 각국이 겪었던 內外的 정치·경제·사회적 변동의 영향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국가간의 관계를 대단히 우호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95년의 北京대회에 이어 작년 서울에서 우리는 환희의 만남을 이루었고 이제 유서 깊은 일본의 古都인 이곳 京都에서 또 한 번 기쁜 만남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비록 짧은 햇수에 불과합니다만 마치 눈덩이가 구르듯 그 규모와 의미는 더욱 壯大하고 深奧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경과 서울대회에서 삼국의 문화·학술·인적 교류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각국에 삼국의 교류를 상징하는 모범적인 도량을 공동으로 건립하지는 제안에서부터 삼국이 公用할 수 있는 전산 데이터 시스템의 개발 등 대단히 건설적이며 시급히 실현하여야 할 사안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업의 제안보다 일차로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대회의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장에 실천하여야 할 사업과 중장기적인 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삼국의 힘을 모아 하나씩 '世紀를 超越하는 傳燈事業'을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6월을 끝으로 오랫동안 英國의 지배하에 있던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됨으로써 西勢東漸의 시대가 완전히 종식되어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아시아인의 自主의이며 主體的 발전이 가일층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때이기에 우리의 만남은 역사적이라 아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세계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삼국의 地政學的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거나 앞으로는 더욱 세계사 발전의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삼국의 황금유대를 위하여 북경과 서울대회에서 제안되었던 여러 과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서울대회를 주관하였던 한국불교중앙협의회 회장 宋月珠스님의 말씀처럼, '실천의 과정에서 삼국의 正體性이 정립될 수 있으며 나아가 21세기 문명사의 조류를 불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초석을 마련' 하게 될 것입니다. 각국에서 제안된 좋은 사업들을 함께 연구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보다 구체화되어 삼국불교우호교류회의가 의도한 목적을 순차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놓아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일이라도 확실하게 실천하여 갈 때 우리의 유대는 공고해질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삼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근사한 점을 悠久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그 近似性을 유지하고 있는 공통본분은 불교입니다. 서력기원이 정해지기 전부터 중국을 경유하여 전파된 불교는 현재까지 삼국의 문화와 학술 그리고 인적 교류를 이루는 결정적인 고리였으며 이것을 통해 삼국은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인종보다 秀勝한 인류 문화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본 대표의 명예대장 中村康隆선생은 작년 서울대회의 개회인사를 통해 중국불교를 아버지라, 한국불교를 어머니라 삼아 일본의 불교가 태동하였다고 하였는데 참으로 삼국은 血緣的 관계라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로 긴밀하였습니다.

삼국의 유대는 이제 먼 미래를 향한 희망찬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의 화해와 평화, 우호와 협력은 삼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노력입니다. 현재 삼국은 각 국가적 이익에 관한 문제로 인해 다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大乘의으로 해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近世에 들어 서양의 발달된 물질문명이 동양을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 삼국은 각각 발전의 다른 경로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상처를 주었으며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루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한 반도는 그 군국주의로 입은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채 민족적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불제자들이 자비와 화합을 가르치신 불조의 慧命을 제대로 이어

삼국의 불교가 찬란한 증흥을 이루어 세계 평화와 인류의 희망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모쪼록 성과있는 연대와 교류로 우리의 유대가 더욱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지기를 중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대회 개최를 위해 수고해주신 일본 불교회의의 關係各位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설문은 효강 법장원장이 경도대회에서 연설한 것을 요약한 것임)

한 일본인들이 한복소리를 내면 왜 그렇게 터무니 없는 때를 쓰는지 두고두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아무쪼록 일본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평화가 깃들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민족으로 남기를 기원하며 일본땅을 떠났다.

천통밀교 불교총지종

밝고 맑은 세상이 되기를...



불교총지종 충청·전라교구장
새해아침 법수원 합장

천통밀교 불교총지종

용맹정진의 한해가 되시기를...



불교총지종 대구·경북교구장
새해아침 수성 합장

신행영협담



수인사 대승정(김정악)

진언염송으로 불치병 고쳐

오래 전 일이다. 딸 아이가 열 두어 살 때, 주마담이라는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 온 몸에 살들이 주먹만한 크기로 툭 툭 붙어있어서 몸이 주먹만한 크기로 툭 툭 붙어있어서 몸이 주먹만한 크기로 툭 툭 붙어있어서...

하니 동네 사람들이 다들 미쳤다고 욕했다. 하루 종일 불공만 하니 내 몸도 힘에 부쳐서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도 매달릴 데라고는 부처님 밖에 없어서 남이 뭐라고 말을 하든, 내 몸이 힘겹든, 나는 열심히 절에 나가 불공을 했다. 아이는 불공하고 며칠째는 더 심해지는 것 같더니 차츰 좋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뭘 듯이 기뻐서,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불공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 날도 절에가서 불공을 하고 집에 오는데 이웃 사람들이 집에 빨리 가보라고 했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좀 나아지는 것 같던 아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별일이나 있겠나 싶어 집에 가는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지심으로 <옴마니 반메홍>을 염송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집으로 혈레벌떡 달려가 아이가 누워 있던 방에 들어가니 있어야 할 딸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생각이 번쩍 스치며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 앉아버렸다. 아이가 죽어서 사람들이 어디다 옮겨 놓았나 싶어 펄펄 울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엄마"하고 불렀다.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던 딸이 나를 부르는 소리였다. 병을 앓고 나서 내내 방에만 누워 있던 아이가 제 힘으로 화장실에 갔다오는 길이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제 동생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오는 딸애를 붙잡고 북받치는 기쁨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뒤로 49일 불공이 끝날 때까지 아이는 차츰 제 혼자 힘으로 걷기도 하고 몸에 툭 툭 붙어있는 상처도 나았고 고름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니 의사가 깜짝 놀랐다. 동네 사람들도 병이 다 나은 딸애를 보고 신기해 했다. 그 뒤로 딸애는 별 탈이 없이 잘 자라 주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딸애를 볼 때마다 흐뭇하다. 아주 오래 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쫄인다. 그 일이 있고 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지심으로 불공을 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도 실천은 잘 못하고 있지만 내 나름대로는 처음의 진심했던 그마음 그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매달리듯이 염송하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그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49일 불공 끝에 딸의 병 완쾌 처음의 지극한 그마음 그대로

절에 가서 불공을 하면 나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가 보다. 내가 처음으로 밀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늑막염에 걸려 고생하다가 진언염송의 공덕으로 건강을 회복하면서부터였다. 병원을 다녀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던 나는 고통에 신음하면서 동네에 밀교사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다. 총지중의 수인사라는 절이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무자정 가서 불공을 했다. <옴마니반메홍>이라는 그 한마디 진언을 간절히 염송하고서 정말 씻은 듯이 나았던 것이다. 그 뒤로는 누가 이끈 것도 아닌데 부지런히 절에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어느새 진언 염송은 나의 정신적, 육체적 의지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남편 취직을 위해서도 백일 기도를 했고 그 덕에 남편도 취직을 하여 집도 마련하고 살만한 때였는데, 딸 아이가 덜컥 병이 들어 의사도 손을 쓰지 못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걱정만 하고 있던 내가 딸아이의 말에 절에 가서 불공할 생각을 그제서야 했던 것이다. 그날로 당장 절에 가서 불공을 했다. 49일 동안 불공을 하며 고기는 물론 아이에게 주던 약도 먹이지 않았다. 새벽 네 시에 절에 가서 불공하고 다시 아침 먹고 절에가고 점심, 저녁, 사분 정진이 되는 것을 했다. 아픈 아이를 눕혀놓고 어머니라는 것이 날마다 절에서 불공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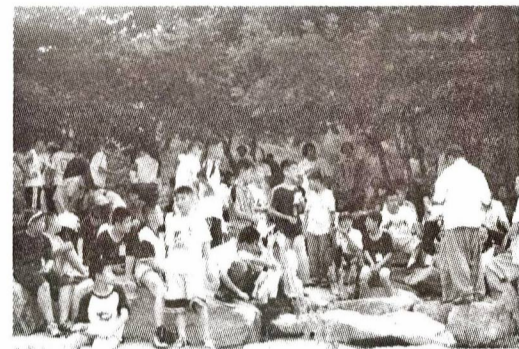
어·린·이·포·교

미래의 꿈나무 자성학교를 살리자

장·단기 계획수립과 종단차원의 지원 필요

본 종단의 각사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던 어린이 불자들을 위한 자성 학교가 스승님들의 무관심과 종단의 지원 부족으로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 많은 사원이 자성학교를 개설해 놓고 있지만 전국 사원 가운데 어린이 학교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두 군데. 그나마 어린이 학교의 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원은 한 곳 밖에 없다. 불교계에서 우리 종단은 나름대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고 말해진다. 이른바 5대 종단 안에 든다는 우리 총지중이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만이 이렇게 특실하다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밀교의 특성상 차원 높은 교리와 사상체계를 어린이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자성학교의 운영이 이렇게 흥행받고 있는 것은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 갈 어린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어린 불자 양성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절감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조계종에서는 평일에도 어린이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 뜻있는 스님들에 의해 어린이 법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우리 종단은 투명한 운영체제와 통리원 중심의 중앙 집중적인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만 있다면 어느 종단 못지 않은 훌륭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자성학교를 유명무실하게 방치하느라 총지중의 어린이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종단, 다른 종교로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볼 때는 안타깝기 짝이 없다. 성장기에 한 번 뿌리내린 종교관은 자리면서도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다. 기독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온갖 사랑발림으로 어린이 포교에 열성적이었던 결과 우리의 안목에서는 터무니 없는 신관(神觀)도 한 번 주입되고나서는 성장 후에도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병폐를 무수히 보아왔다. 성인 대상의 교화에만 열중한 나머지 어린이 포교를 등한시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 불자들이 가르침의 기회를 잃고 자칫 외도의 무리에 휩쓸려 일생을 무명 속에서 살아가는 불행을 겪지 않게 하기위해서도 자성학교의 적극적인 운영이 요청된다. 울 여름에 다른 종파에서 하는 어린이 캠프

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어린이들의 종교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참가한 어린이들의 종교는 천차 만별이었다. 그 프로그램을 주관한 한 스님은 "이렇게 인연 교리를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아이들이 이 인연을 따라서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고 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중요시 한다. 한 번 인연을 맺어 놓으면 인연기는 그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야 아이들의 발길을 돌려 놓을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불교로 돌아온다는 뜻이었다. 불자 양성에든 먼 장래를 내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종단의 역량으로 보아 미래의 불자양성에 힘을 쏟을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교세를 축소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주위의 여건만을 탓할 수는 없다. 하루 빨리 자성학교를 부활하여 타종교, 타종단에 발길을 돌리는 어린이들을 우선 자성학교로 흡수해야 한다. 급한대로 통리원에서 「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성학교 자체를 활성화하고 그러한 것과 병행하여 자성학교 활성화의 저해 요인과 전국 사원 스승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어린이 포교 및 프로그램 연구 위원회」같은 기구를 발족하여 장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성학교의 여름수련회 풍경

정리:법장원 김혜경



소보위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 유한김벌리와 효성바스프의 횡포.....

종단협 소보위(불소보)가 대기업의 횡포로 도산한 유망중소기업 삼우화학을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불소보는 지난 9월 초순 종단협 사무실에서 작년 10월 부도로 쓰러진 삼우화학 대표 배호성씨와 이 회사 기술부장 박영춘씨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고 이후 부도의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삼우화학과의 거래관계에 있던 대기업 유한 김벌리와 효성 바스프가 명백한 부당 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유한 김벌리와 효성 바스프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로 쓰러진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불소보의 항의 공문에 대해 유한김벌리 부사장 문경원씨 등 관계자는 불소보 사무실을 찾아와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불소보가 일방적으로 삼우화학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시하였다. 유한김벌리는 11월 13일 오후 3시 불소보 사무실을 두 번째 내방, 불교계 지도자와 기자들이 참석하는 공개청문회를 18일 오전 10시 종단협 회의실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불소보는 기꺼이 동의하고 공개청문회는 준비하였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 하루 전날인 11월 17일 오후 4시 유한김벌리의 이은욱홍보실장이 찾아와 공개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전하였다. 이유는 이미 삼우화학의 주장을 편드는 불소보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불소보 서동석기획실장은 유

한 측이 불소보의 주관으로 공청회를 하자고 제안하여 삼우화학에도 통고하였고 불소보 명의로 각 언론사에 공청회 개최를 알렸으므로 단체의 공신력을 감안할 때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 공청회 당일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일찍 종단협 회의실을 찾아온 유한김벌리 문 부사장등 각 부장 4명은 역시 같은 주장을 내세워 공청회 개최에 지장만을 주고 돌아가서 삼우화학만이 참석하는 기자 간담회가 되었다. 이에 불소보는 유한김벌리의 부도덕한 태도를 규탄하고 유한김벌리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의 전단계로 12월 초순부터 각 종단과 사부대중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벽보작업과 동시에 컴퓨터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론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 자금지원을 받을 정도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몰린 원인으로 가장 큰 요인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관행으로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속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한김벌리에 의해 쓰러진 삼우화학 살리기는 대단히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대기업의 횡포에 못이겨 자금압박과 부도를 겪는 중소기업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연일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삼우화학 살리기는 단지 특정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구현과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보살행이므로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유망 벤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로 쓰러졌습니다-

지금 온나라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끝내 외국의 자금을 빌려야 하고 결국 나라의 주권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국가경제가 이토록 참담한 상황에 오게된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만불 소득시대를 열었다고 들뜬 나머지 외국의 상품이 넘쳐들 들어오고 너도나도 외국관광이다 유학이다 하여 해본 씹씹이가 유행처럼 된 탓도 있습니다. 재벌들의 과도한 증폭투자도 큰 원인이 되었으며 거대한 지하 자금으로 인해 자금의 흐름이 막히게 된 것도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요인은 국가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로 줄지어 도산하였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외국의 자금을 아무리 들여와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번성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고 대기업의 횡포가 없어져야 국가 경제가 되살아나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건강한 경제구조를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유망 벤처 중소기업 삼우화학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80년대 후반들어 수요가 부쩍 늘어난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등에 들어가는 방수용필름은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작은 기업 삼우화학은 이 필름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입물량을 대체하여 연간 4,000만분의 외화절감은 물론 수출로 국가경제의 부흥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삼우화학은 이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표창과 자금지원을 받는 대단히 모범적인 중소기업체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는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한 '통기성 필름'을 개발하는 성과를 올려 유망 중소기업으로 착실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기저귀와 생리대 등의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유한김벌리는 삼우화학의 제품이 외국제품에 비해 가격도 낮고 질도 대등한 까닭에 87년부터 전량 구입하였으며 기저귀와 생리대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그 거래량은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김벌리클라크와 합작하여 설립된 유한김벌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신장세를 보여 국내 기저귀 생리대 시장에서 과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역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삼우화학에 생산시설의 증설을 요구하였고 삼우화학은 이를 반영 계속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한김벌리는 양사간의 계약을 무시하고 삼우화학이 공급하던 물량의 일부를 다른 회사로 넘기는 부당한 거래를 지속함으로써 삼우화학은 가동률이 떨어지고 따라서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치 못하다가 급기야 작년10월 부도를 내고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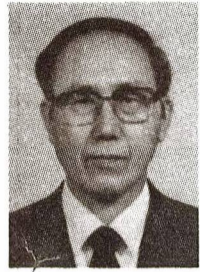
외국투자기업 유한김벌리와 효성바스프에 의해 무너진 토종 중소기업 삼우화학

유한김벌리의 부당한 거래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 삼우화학은 경영 개선을 위해 레저용 간이테이블을 생산하여 거의 전량(90%)을 수출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이 제품의 원자재는 독일 투자기업 효성바스프에서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96년 1월부터 2월까지 납품한 원자재에 문제가 생겨 약 6만세트 가량의 제품에 불량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삼우화학은 효성바스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아직껏 그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투자기업 유한김벌리와 효성바스프에 의해 유망한 토종 중소기업은 쓰러지고 종업원은 직장을 잃은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염원하는 정토사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건강하고 기업과 기업의 관계 역시 부당한 횡포가 없는 사회입니다. 불자의 뜻과 힘이 모아진다면 중소기업을 살리고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하여 맑고 건강한 정토사회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유한김벌리와 효성바스프에 항의 전화와 함께 부도로 쓰러진 회사를 살리고자 혼신의 노력을 쏟는 삼우화학의 전직원에게 힘을 주십시오.

항의전화 하실 곳: 유한김벌리 서울본사 ☎ 528-1110, 효성바스프 ☎ 02-707-6603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중 대

신임 통리원장에게 바란다

종단화합과 종조의 유지 계승을



침체된 교세가 새롭게 활기를 얻어 힘차게 도약하기를...

총지종 창종 이래 정사님들만의 고유한 자리로만 여겼던 통리원장이 처음으로 전수님들도 직책을 맡아 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총지화 전수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그간 사회적 흐름과 같이 다소 침체된 교세가 새롭게 활기를 얻어 힘차게 도약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같이 힘 모아 대진정하며 서로가 서로를 믿

는 좋은 사회를 만들 듯이, 새 통리원장님의정책에 참종정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종헌, 종법을 준수하며 실천하는 집행부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곡히 기원 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확고한 총지화 새 통리원장님과 새 집행부의 발전이 있기를 서원 합니다.

경북 교구장/개천사 주교 수성



종법에 명시된 각종 기구를 활용하시기를...

우리 총지종 창종 이래 첫 여성 통리원장으로 취임하신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원장님께서서는 창종에 동참한 분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경륜을 쌓으셨고 또한 해박한 분으로서 무난히 업무를 수행하실 분으로 믿으면서 외람되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 스승님을 상면하실 때, 혹 편파적인 견해로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 종단 화합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종무처리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독단보다는 종법

에 명시된 각종 기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셋째, 모든 종무는 종법에 입각해서 처리가 되어야 법에서 벗어난 처리는 없도록 각별히 유념바랍니다. 넷째, 행여나 원장님이 여러 승단, 또는 교도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비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종단의 머슴이라는 심정으로 겸허한 자세를 지니시면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노파심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옴마니반메흠.

경인·서울 교구장/관성사 주교 경관



한뜻으로 총지종 교세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총지화 스승님의 제 11대 통리원장 취임을 봉축드립니다. 스승님의 탁월하신 능력과 수행과 실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총지종의 교세발전과 전국 스승님들의 마음에 용기와 활력을 넣어주시는 능력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만보사 주교로 계시면서 총전교구장, 교정부장, 사감원장 등을 역임하셨고 대전지구 불교연합의 각종 회의에 두루 참석하여 총지종의 우월성을 각 종단에 널리 알리는 데 공헌하셨고 지금의 웅장한 만보사 건립과 만보사 합창단 창단등, 헤아릴 수 없

이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아울러 총전교구 산하 각사원 교화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평소애 우리들을 대하시던 자비심과 편견없는 스승님의 인품으로 이제 통리원장에 취임하시니 총지종의 앞날이 밝아 오는 것 같습니다. 종령님을 위시(爲始)하여 집행부와 일선 사원 스승님들이 일치 단결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총지종 교세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충전교구장/법화사 주교 법수원



신바람나게 교화할 수 있는 종단의 믿음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총지화 스승님께서 통리원장에 취임하심을 종도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 12월 24일이면 창종님께서 필마단기로 창종하신지 여인 4만 세기가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창종님의 창종정신을 계승하고 유훈을 잘 받들어 교화발전애 더욱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아시고, 인재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인내심과 사명감을 갖고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분

위기를 만드는 일, 우리가 신바람 나게 교화할 수 있는 종단의 믿음, 이것은 신임 통리원장님께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종단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애종정신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먼저 실천하는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신임 통리원장님은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으로 항상 언로(言路)를 열어 어려울 때일수록 가슴을 열고 대화를 나누어 종단 발전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의회 감사위원/국광사 주교 법성



승단 화합과 종단 발전에 더욱 정진하시기를...

신임 통리원장님의 취임을 먼저 지심으로 경하드립니다. 법계(法界)에 총만하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加持)로 건강하심과 지혜구족(智慧具足) 하시옵고 위로는 종령님과 기로스승님들을 편안하게 하시고 아래로는 승단 화합과 종단 발전애 더욱 정진하셔서 임기 동안 최선을 다 하시기를 합

장서원 하옵니다.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서원당도 바쁘신 가운데 한 번 씩 다녀가시길 소망합니다.

밀행사 주교 지희심



종단을 잘 이끄시어 좋은 법을 누릴 수 있도록...

총지화 전수님의 통리원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우리 총지종의 초창기에 신탄진과 대전, 전주를 오가며 교화에 열중하시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전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오니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여성으로

서 통리원장에 취임하시어 우리 종단을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니 무척 기뻐합니다. 전수님의 그러한 정열이라면 못 이룰 것이 없겠지요. 아무쪼록 우리 종단을 잘 이끄시어 이렇게 좋은 법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홍곡사 신정회 회장 자력정(진종진)

총지화 통리원장, 어떤 분인가?



용맹정진과 교화의 화신

총지종 제 11대 통리원장으로 임명된 총지화 지수는 본명이 김점순이고 1936년 전주 태평동에서 김용선씨와 임흥근, 부모님의 8남매 가운데 차녀로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성향이 강해서 평상시 항상 생사의 문제나 우주의 근원에 대하여 막연하나마 혼자만의 생각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에는 이웃의 권유로 얼마 동안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설교를 듣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적 차별을 수긍하기 어려웠고 창조주는 왜 피조물에게 고통과 장애 등 불완전한 모습을 부여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으며, 이런 의문이 거듭 되면서 알지 못하지만 어떤 정도라 할 수 있는 우주적 섭리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이를 찾아 정신적 고뇌의 방황을 하였다. 이 무렵, 한 번은 소학교 산수시간에 갑자기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할 정도로 날다른

면이 강했다고 한다. 이날 집으로 오는 길에 문득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할머니의 관이 보이고 고양이가 부엌 아궁이로 들어가는 이상한 광경이었다고 한다. 집에 와 보니 죽음에 대해 질문하던 바로 그 산수시간에 77세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일이 있던

뒤부터 삶과 죽음에 대하여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던 점순씨는 전주 여중을 졸업하고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게 되었는데 "옴마니반메흠"이라는 진언과 함께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글귀를 보고 갑자기 앞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것이 밀교와 첫 만남이었다. 이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자 솜구치는 항학열을 참기 어려워하는 강한 갈등 속에 13세에 진각종에 입문했다. 20세 때 스승이 되어 처음으로 죽비를 잡은 뒤부터 줄곧 교화에 힘쓰며 진언에 의한 득력을 하여 신탄진에서 교화를 하는 시절에는 환자를 손으로 만지기만해도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한다. 6.25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뒤부터 18년동안 부병을 하던 남편 계당 정사의 병도 이때부터 낫고, 또 하나의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꿈에 어떤 스님이 현현하여 발우에 든 어떤 액체를 입에 부어주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 때가 1970년, 이 꿈을 꾸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더니 마침 원정 종조께서 준제법을 연구하고 계시던 참이었는데, 준제법을 받아든 순간, 자신이 찾던 진정한 밀교의 수행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 뒤, 곧 신탄진으로 돌아와서 진각종의 스승직을 미련없이 버리고 하심(下心)과 용맹심(勇猛

心)과 지혜로써 정진에 들어갔다고 한다. 정진하는 가운데 이상한 경험을 했다. 크거나 빛깔이 당구공과 비슷한 5주보말이 방석 밑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이것은 차들이 아니라 주춧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현교에 입문하라는 권유에도 현혹되지 않고 오직 밀법에 의지하여 깨달음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했다고 한다.

준제법의 실천으로 교화에 자신이 생기자 곧바로 교화에 주력했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방한 칸을 세내어 다라니를 모시고 법을 펼쳤다. 이후 교회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신탄진에 기반을 두고 대전과 전주를 번갈아 가며 준제법을 펼쳤다. 총지화 지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보살들은 이 당시의 전법애의 정열은 가히 초인적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신탄진과 대전 및 전주를 오가며 차안에서 잠을 자더라도 교도를 중 누구라도 일이 생기면 천리길도 마다않고 아무런 주려가며, 오직 이 한 몸이 있어 누군가가 고통을 덜 수 있다면 불속이라도 뛰어들겠다는 관음보살의 살아있는 화신으로서 교화를 펼쳤다고 한다.

이렇게 자비를 펼쳤던 신탄진 서원당이 지금의 백월사의 전신이며, 언니의 단칸집을 빌려 교화를 펼쳤던 전주의 서원당은 지금의 홍곡서로 발전했다. 이후 대전 삼성동으로 교화 중심을 옮겨 관음서원당을 개설하고 그것이 발전하여 현 만보사가 되었다.

용맹심과 하심과 지혜를 강조하시는 총지화 지수는 진리의 요점을 알아서 참되게 행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며 교화를 실천하는 가운데 성불의 길이 있고 참된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젊은 시절 솜구치는 항학열을 다하지 못한 총지화 지수는 정진하는 용맹심으로 52세부터 56세 시절에 스리랑카 불교대학 한국분교에서 수업하실 때, 대전에서 서울을 통학하며 노력하는 모범을 보여 스리랑카 불교대학 본교에서 노력상을 수여 받기도 하였다. 이 시절에는 밤낮의 구분이 없고 건강상의 무리를 두려워 함이 없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대전애 도착하면 자정에 이르는데도 이어서 새벽녘까지 금강경 공부를 마치고서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시 눈을 붙이면 곧 새벽에 정진하는 보살님들의 출입 소리에 다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초인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26 여년을 만보사를 이끌어 오며 부산의 고(故) 정각원 대전수와 함께 총지종의 두 기둥으로서 중부지역의 교화를 담당해온 총지화 지수는 밀교계 최초로 여성 통리원장의 자리에 오름으로 우리나라 불교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갈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제 11 대 통리원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총지(總持)는 오직 묘한 약이요
하늘의 감로와 또한 같아서
미혹된 병을 능히 고치니
먹는 자 항상 안락하리라

- 반야경 -

불교총지종 신정회

밀교의 명왕

대일여래의 사자, 부동명왕



일본 비에산 연력사 부동명왕이동자상

〈대일경소〉의 설명에 의하면 부동명왕은 여래의 사자(使者)이며 오른 손에는 큰 지혜의 칼(大慧刀)을 왼손에는 밧줄(羅索)을 지니고 잇발을 드러 낸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부동(不動)이란 견고한 보리심을 말하며 깨달음의 지혜가 흔들리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 존은 대일여래의 교령륜신(敎令輪身:여래의 명령을 받드는 존신)으로서 그 구체적인 실천자이기도 하다. 불법을 가로 막는 자에 대하여 분노로서 맞서며 그 자의 목숨을 끊어 놓는다고 한다. 오른 손의 칼로는 번뇌장(煩惱障)·소지장(所知障)을 끊고 왼손의 밧줄로는 중생을 정도(正道)로 이끄는 것을 상징한다. 화염에 휩싸여 있는 모습은 스스로 화염이 되어 갖가지 번뇌를 태워 없앴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화생삼매(火生三昧)라고 한다. 이 그림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머리를 묶어 늘어뜨린 것은 대일여래의 충실한 종으로서 중생제도에 전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동명왕의 머리 위에는 연꽃이 있는데 이것은 부동명왕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방편일 뿐 실은 내면에 무한한 지혜를 지니고 있음을 상징한 것이다. 동시에 이 부동명왕은 함삼세명왕, 군다리명왕, 대위덕명왕, 금강아차명왕과 더불어 오대명왕으로 불리우며 그 주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랑스런 대경인상 수상 개천사 한영란 보살



개천사의 한영란 보살이 제1회 자랑스런 대경인(大慶人)상을 수상했다. 지난 12월 1일 대구그랜드호텔 다이너스튜디오에서 개최된 대구방송 FM개국 축하리셉션에서 한영란 보살은 상금 500만원과 합

계 상장을 수여했는데 이 상은 대구와 경북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대구방송이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영란보살이 받은 상은 언론출판

부문의 상으로서 한보살이 〈시와 반시〉라는 시전문 계간지를 발행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시와 반시〉는 엄정한 눈, 깨어 있는 의식, 열린 마음을 표방하며 지역 최초의 시전문 계간지로서 5년전에 창간되어 신인 발표기회 확대와 문단활성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획특집물로 한국문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한영란 보살은 개천사의 뛰어난 밀교 행자이며 여법한 생활태도로서 두 아들을 서울대에 동시에 입학시킬 정도로 가정교육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불자

덕화사 안혜민 군

고입검정고시 최연소, 최고득점 자성학교 출신, 진언 공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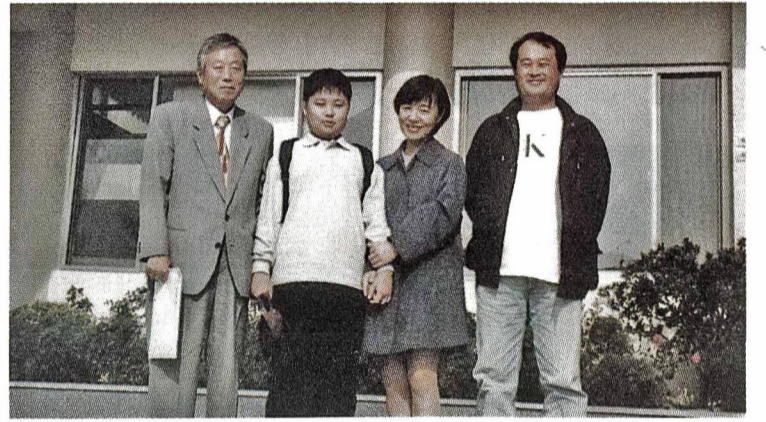
아직 초등학생이 가시지 않은 얼굴에 해맑은 웃음을 가진 안혜민군. 혜민군의 이름 앞에는 "고입 검정고시 최연소, 최고득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6개월 밖에 안된 12살 소년이 97년도 고입 검정고시에서 부산지역 최고득점과 최연소합격자라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월 구포초등학교를 졸업한 혜민군은 9백점 만점에 8백60점, 평균 95.5점을 얻어 최연소, 최고득점이라는 2관왕의 영예를 안았는데 그런 수식어 앞에 흔히 있을 법한 인간 승리나 눈물겨운 고생담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혜민군을 만나는 사람은 다들 화염경에 나오는 선재동자를 생각하게 된다. 말갈계 씻겨진 얼굴에는 티 하나 없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금새 나이와 상관 없이 그와 벗이 된다. 그의 꾸밈없는 웃음은 누구든지 편안하게 만들며 나이를 넘어서 친밀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공부 잘 한다고 잘난 척하는 학생이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걸쭉버린 학생하고도 거리가 멀었다.

안혜민군이 고입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혜민군의 어머니는 중학교 사회 교사로 가끔 집에 학생들의 시험지를 가져 오는데 혜



안혜민 군

민군이 잘 풀려란다. 어릴 때부터 유달리 독서를 즐기고 특히 백과사전을 좋아해 일반 상식에도 뛰어났던 혜민군인지만 이 정도면 고등학교를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으셨다. 무역업을 하는 아버지 한갑수씨도 아내의 그런 의견을 듣고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불신도 있던 차에 유달리 총명한 아들에게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었다. 대개 그와 벗이 된다. 그의 꾸밈없는 웃음은 누구든지 편안하게 만들며 나이를 넘어서 친밀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공부 잘 한다고 잘난 척하는 학생이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걸쭉버린 학생하고도 거리가 멀었다.



가지고 집에서 공부하고 혼자서는 어려운 영어만 교습을 받았다. 한문은 고희의 할아버지께서 도와 주시고 역사는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어진 역사소설을 통하여 했다고 한다. 학교의 수업시간처럼 40분 공부하고 20분 휴식을 하는 방법으로 지루함을 없애고 시간이 가면 할아버지와 산책을 하면서 부족한 운동을 했다는데 이처럼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면서 시간이 가면 불공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혜민군을 더욱 훌륭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그의 겸손한 마음 가짐과 주위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 태도이다.

혜민군은 자신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덕을 돌리는 속 깊은 소년이다. 사실 혜민군의 할머니는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축하합니다

- 밀인사 김정규 각자님의 장남 상우군과 김병수씨의 장녀 지연양이 11월 22일 12시에 서울의 첨우센터 17층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 총지회 통리원장의 3녀 이양수 양과 박매월 여사의 4남 이현오 군이 12월 13일(토요일) 오후 1시에 불교방송(BBS) 3층 대법당에서 불교텔레비전 이사장 태웅스님의 주례로 화촉을 밝혔습니다. 신랑 이현오군은 독실한 불자로서 불교텔레비전(btn) 제작팀 프로듀서로 활동중이며 신부 또한 총지사의 교무로서 신심이 돈독하다고 합니다.

- 만보사의 이경순(불명 사유혜) 보살님의 4녀 한연숙양과 박봉규씨의 4남 박홍역군이 12월 21일(일요일) 12시에 만보사 1층 대강당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영식왕생을 기원합니다

- 실지사 신정희 회장 실천재보살의 부군이신 김인택 각자님(신유생 향년 77세)께서 12월 8일 열반하셨습니다.

구독신청 및 원고접수

전화 : 508-8933 (담당 김혜경)

불교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투자



2천8백만 불자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불교텔레비전이 영상포교의 새시대를 선언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깨달음의 길잡이로써 무명과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고뇌와 번민의 근원에서 벗어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온누리가 부처님의 땅이 되도록 나와 이웃, 나와 사회 그리고 나와 부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일치유회의 꽃을 피워 나갈 것입니다.

본 사 :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금호전기빌딩)
전화 : (02)3270-3300 팩스 : 3270-3498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0(동양빌딩)
전화 : (051)645-5114 팩스 : 631-1772